

# 2024년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 문화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미 시 의 회  
전 문 위 원 실  
[ 산업건설위원회 ]  
[ 문화환경위원회 ]

# || 목 차 ||

I . 공무국외출장 개요 .....	1
II . 출장국 및 도시 현황 .....	5
III . 기관(현장) 방문 내용 .....	21
1. 루르 박물관 .....	21
2. 란트샤프트 공원 .....	24
3. 물류 ICT 전시회 .....	26
4. 하이네켄 박물관 .....	28
5. 반고흐 미술관 .....	30
6. NEMO 과학 박물관 .....	32
7. 토마토월드 .....	34
8. 마켓홀 .....	36
9. 쾰른 예술 전시회 .....	38
10.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40
11. 괴테 하우스 .....	42
12. 웨스타펜 타워 & 마인우퍼 공원 .....	44
IV . 방문후기 및 향후 활용 방안 .....	46
V . 개인별 소감 및 의견 .....	60

## I.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장 국가 : 독일, 네덜란드(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등)

### 2. 출장 목적

- 지역사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과 네덜란드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국제적 안목을 길러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출장 기간 : 2024. 11. 03.[일] ~ 11. 11.[월] (7박 9일)

4. 보고서 작성자 : 김낙관, 김재우 의원 등 21명

5. 출장자 : 총 22명 [의원 14명, 직원 8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구미시의회	의 장	박교상	
2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8명)	위원장	김낙관	
3		간 사	정지원	
4		위 원	양진오	
5		위 원	이명희	
6		위 원	장세구	
7		위 원	신용하	
8		위 원	소진혁	
9		위 원	김원섭	
10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5명)	위원장	김재우	
11		간 사	이정희	
12		위 원	강승수	
13		위 원	김춘남	
14		위 원	추은희	
15	의회사무국 (7명)	전문위원	임기동	
16		주무관	김명화	
17		주무관	김근태	
18		주무관	문수진	
19		주무관	박주현	
20		주무관	최수연	
21		주무관	유선중	
22	구미시	팀 장	김지훈	정책기획과

## 6. 주요 방문 기관 및 현장

국가명	방문 기관(현장)	비 고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센 : 루르 박물관</li> <li>◆ 뒤스부르크 : 란트샤프트 공원</li> <li>◆ 쾰른 : 예술 전시회</li> <li>◆ 프랑크푸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TRA 무역관</li> <li>▶ 괴테 하우스</li> <li>▶ 웨스타펜 타워</li> <li>▶ 마인우퍼 공원</li> </ul> </li> </ul>	4개 도시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트레흐트 : 물류 ICT 전시회</li> <li>◆ 암스테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네켄 박물관</li> <li>▶ 반고흐 미술관</li> <li>▶ NEMO 과학 박물관</li> </ul> </li> <li>◆ 덴하그 : 토마토월드</li> <li>◆ 로테르담 : 마켓홀(마르크트할)</li> </ul>	4개 도시

## 7. 주요일정

날짜	지역	시간	세부일정	세부내용
1일차 11.3. (일)	한국 → 독일	04:30	구미 → 인천	□ 버스 이동 시간 4시간
		11:25	인천 → 독일	□ 비행시간 13시간 55분
		17:20	프랑크푸르트 도착	□ 버스 이동 시간 3시간
	(독) 뒤셀 도르프	20:20	뒤셀도르프 도착	□ 에센 인접 지역
2일차 11.4. (월)	(독) 에센	10:00	루르 박물관	□ 방문목적 ▶ 석탄 광산, 철강 공장 등 지역 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 공간 창출 및 도시재생 방안 모색
	(독) 뒤스 부르크	14:00	란트샤프트 공원	
3일차 11.5. (화)	(네) 위트 레흐트	10:00	물류 ICT 전시회	□ 방문 목적 ▶ 신공항 물류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최신 물류장비, 시스템, 기술 등 글로벌 시장 동향 파악 ▶ 농심 라면 등 지역 생산품을 이용한 관광 자원 개발 방안 모색
	(네) 암스 테르담	14:00	하이네켄 박물관	
4일차 11.6. (수)	(네) 암스 테르담	10:00	반고흐 미술관	□ 방문목적 ▶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등 문화·예술 체험 기회 향상 및 인프라 개선 방안 모색
		14:00	NEMO 과학 박물관	

5일차 11.7. (목)	(네) 덴하그 (헤이그)	10:00	토마토월드	<input type="checkbox"/> 방문목적 ▶ 첨단 농업 기술 활용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 벤치마킹 ▶ 전통시장, 상업시설, 주거시설을 통합한 복합건물 비교견학
	(네) 로테르담	14:00	마켓 홀	
6일차 11.8. (금)	(독) 쾰른	10:00	쾰른 예술 전시회	<input type="checkbox"/> 방문목적 ▶ 유럽 대표 아트 페어 시찰로 지역 예술 인프라 확대 및 문화프로그램 모색 ▶ 유럽 진출 희망 기업 지원책 등을 청취하여 관내 기업 수출 지원 방안 모색
	(독) 프랑크푸르트	16:00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7일차 11.9. (토)	(독) 프랑크푸르트	10:00	괴테 하우스	<input type="checkbox"/> 방문목적 ▶ 지역 대표 인물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모색
8일차 11.10. (일)	(독) 프랑크푸르트	10:00	웨스타펜 타워 및 마인우퍼 공원	<input type="checkbox"/> 방문목적 ▶ 수변 공간을 활용한 도시 재생 및 시민 여가 생활 증진 방안 벤치마킹
		19:30	독일 → 인천	<input type="checkbox"/> 비행시간 11시간35분
9일차 11.11. (월)	독일 → 한국	15:05	인천 → 구미	<input type="checkbox"/> 버스 이동 시간 4시간
		21:00	구미 도착	<input type="checkbox"/> 해산

## II. 출장국 및 도시 현황



### 독 일

유럽 중부에 위치한 연방국으로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다. 수도는 베를린이고 공식 언어는 독일어로 지역에 따라 여러 방언이 존재한다. 16개의 주(Länder)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3개의 도시, 베를린·함부르크·브레멘이 포함되어 주(州)와 동등한 자치권을 갖는다.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창설국으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유럽 전체로는 러시아와 튀르키예에 이어 세 번째인 인구 대국(약 8,400만명)이다.

지리적으로 북으로 북해와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와 접한다. 국경선 안쪽으로 알프스 산맥·라인강·도나우강·슈바르츠발트 산맥이 자리하고 있다. 영토면적은 약 357km<sup>2</sup>로 프랑스의 약 3분의 2 정도의 규모(대한민국의 3.5배)이며 유럽에서 일곱 번째로 크다.

독일의 영어명인 'Germany'는 로마의 정치인이자 장군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라인강 동부에 사는 민족을 '게르마니아(Germania)'로 부른데서 유래한다. 또한 독일어 국명인 'Deutschland'는 '독일의 땅(diutisciu land)'에서 유래한다.

현재의 독일 지역에는 기원전부터 여러 게르만계 부족이 거주하였고, 서기 100년경 문헌에 게르마니아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10세기에

이르러 게르만족은 신성로마제국의 핵심 민족이 되었고, 16세기에 북독일은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었다. 1806년 나폴레옹 전쟁으로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되면서 여러 제후국과 도시국가로 분열되었다가, 1871년 북부의 프로이센이 중심이 되어 독일제국(German Empire)을 형성하여 중부유럽의 강국으로 군림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하였고, 이후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잡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1949년 종전과 함께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전승 4개국의 분할통치를 받다가,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서독은 1950년대부터 '라인강의 기적(Miracle on the Rhine)'으로 불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냉전이 정점에 이른 1961년에는 동독 측에서 일방적으로 베를린 시를 가르는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여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으로 정치적 대치가 완화되고 경제적 교류가 진행되었고,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른 동독의 공산정권 붕괴로 1990년 통일이 이루어졌다. 통일 후 독일은 유럽연합의 핵심 회원국으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 【 지 도 】



## 【 현 황 】

현 황	내 용	비고
위 치	유럽 중부	
경 위 도	약 북위 51.1657°, 동경 10.4515°	
면적(km <sup>2</sup> )	약 357,022 km <sup>2</sup>	
해안선(km)	약 2,389 km	
수도	베를린(Berlin)	
종족구성	독일인 91%, 터키인 2%, 기타 7%	
공용어	독일어(German)	
종교	기독교(프로테스탄트 26.7%, 가톨릭 27.7%), 무종교 37.8%, 이슬람 4.9%	
건국일	1871년 1월 18일(독일 제국 설립) 1990년 10월 3일(통일 독일)	
국가원수	대통령 : 폴아크 발터 슈타인 마이어 (※ 총리 : 올라프 숄츠)	
정치	연방 공화국, 의원 내각제	
통화	유로(€) (EUR)	
인구(명)	약 8,400만 명	2024년 기준
평균수명(세)	약 81세	
1인당 명목 GDP(\$)	약 53,800 USD	2023년 기준
수출규모(억\$)	약 1조 7,320억 USD	
수입규모(억\$)	약 1조 5,650억 USD	
인구밀도(명/km <sup>2</sup> )	약 235명/km <sup>2</sup>	

## [독] 에센

라인강(江)의 지류 루르강(江) 북안(北岸)에 있다. 과거 150년 동안 철강왕(鐵鋼王) 크루프사(社)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말에는 연합군의 맹렬한 폭격으로 파괴되었으나 전후에 복구되었다. 시(市)는 852년 힐데스하임의 주교 알트프리트에 의하여 건설되었는데, 1000년경에는 1,041개의 시장권(市場權)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1802년의 인구는 3,480명으로 프로이센령(領)이 되었는데, 그뒤 독일 최대 공업도시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22개의 수갱(豎坑), 7개의 코크스 제조공장, 라인베스트팔렌 발전소, 루르 가스회사 등이 있으며, 철강업을 비롯하여 무기·기관차·농업기계·화학·섬유 등의 공업이 활발하다.

1811년에 설립된 크루프사의 본사 및 공장 등이 있다. 루르 지역과 라인베스트팔렌 탄전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 상공회의소, 1957년부터는 가톨릭의 루르 대주교구 사무처, 루르 탄전지구 협회, 수자원(水資源) 협회, 지방사회법원, 799년에 세워진 베르텐수도원, 852년에 세워진 많은 보물이 있는 대성당, 크루프의 휘겔 별장, 근대화회의 폴크방 회화관, 기타 많은 연구소와 실업학교 등 각종 기관·시설이 집중해 있다. 남서부에 있는 그루가 공원은 루르 지방 최대의 공원으로, 1929년의 루르 지방 원예박람회 때 조성된 뒤 2차례 확장되었다. 행정구역은 9개 구(stadtbezirke)와 50개 동(Stadtteile)으로 이루어져 있다.

## **[독] 뒤스부르크**

라인강과 루르강의 합류점에 위치한 세계 유수의 하항(河港)으로, 루르공업지대의 중심적인 도시이다. 특히 유럽 광산업의 핵심으로, 유럽 최대의 철강 도시이며,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석탄 선적항이기도 하다.

수륙교통의 중심지로, 북해·발트해와 직접 항로를 통하고, 라인-헤르네 운하·도르트문트-엠스 운하로 독일 북부의 여러 항구와 연결되는 유럽 제일의 내륙항이기도 하다. 주요 공업제품은 선철·강철·중공업기계 등이다. 시청 앞에는 1594년 82세로 이 도시에서 사망한 ‘메르카토르 투영도법’ 지리학자 G.메르카토르의 기념상이 있다.

## [독] 쾰른

독일 라인강 유역에 위치하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인 뒤셀도르프와 동남부로 45km 거리에 있고, 통일 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임시 수도였던 본과는 북동부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다. 베를린·함부르크·뮌헨에 이어 독일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고, 최대 광역권인 라인-루르(Rhine-Ruhr)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도시이다.

서기 1세기경 로마제국이 게르마니아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적 거점으로 개척하였다. 459년 프랑크 왕국이 로마군을 몰아낸 이후 게르만족의 거주지역이 되었고, 중세 한자동맹의 일원으로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무역도시로 번영하였다. 19세기부터는 철강 산지인 루르(Ruhr) 지역과 가까워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였다.

오랜 역사로, 웅장한 건물에 원형의 돔이 설치된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과 높은 첨탑이 있는 고딕 건축 양식의 건축물이 많다. 쾰른 대교구의 주교좌성당인 쾰른 대성당은 고딕 양식의 장중함이 정점에 달한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힌다. 또한 많은 대학이 소재한 교육의 도시로, 1388년에 설립되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쾰른대학교가 위치한다. 시내에는 30여 개가 넘는 박물관과 수백여 개의 갤러리가 산재하여 로마시대 유물부터 현대적인 그래픽 디자인까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 [독] 프랑크푸르트

라인 지구대 북부 라인강의 지류인 마인강 연변에 있는 상공업도시이다. 문호 괴테의 출생지로 널리 알려졌으며, 18세기까지는 국왕의 선거 및 대관식이 거행되던 곳이었다. 1815년 빈 조약으로 독일의 4개 자유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1816년에는 독일연방 의회의 개최지가 되었다. 1848~49년에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열렸으며, 1871년에는 프랑스-프로이센전쟁의 화평조약이 이곳에서 체결되었다.

독일의 주요 금융 무역 중심 도시이며 오늘날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뱅크(Bundesbank)를 포함한 200개 이상의 은행이 프랑크푸르트에 본사 및 지사를 두고 있다. 도시 내 외국인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며 유럽중앙은행이 이곳에 소재한다. 그 외에도 자동차, 과학기술 및 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주축을 이룬다.

헤센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라인강의 지류인 마인강을 끼고 이웃한 오펜바하 암마인(Offenbach am Main)과 광역 도시권을 이루며, 라인-마인 광역도시권(Rhine-Main Metropolitan)의 중심에 위치한다. 2013년 유럽연합의 확대 이후 프랑크푸르트의 금융 중심지구가 유럽연합의 지리적 중심지와 거의 일치한다.



## 네덜란드

정식 명칭은 네덜란드 왕국(Kingdom of the Netherlands)으로, 홀란드(Holland) 지방에서 딴 이름인 홀란드로 불리기도 한다.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며,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로 네덜란드라는 이름도 ‘낮은 땅’이라는 뜻에서 왔다. 동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는 벨기에와 접하며, 서쪽과 북쪽은 북해와 접한다. 속령으로 카리브 해에 네덜란드령 앤티리스제도(5개 섬으로 구성)와 아루바 섬이 있으며, 한때 인도네시아도 속령으로 있었다가 1945년 독립했다.

국토의 총면적은 4만 1526km<sup>2</sup>(대한민국의 0.4배)이며, 내해수면을 제외할 경우는 3만 7305km<sup>2</sup>이다. 해안선의 길이는 451km, 육지경계의 길이는 1,027km이다. 유럽 본토와는 별도로 카리브 해 지역에 네덜란드령 앤티레스(Netherlands Antilles), 쿠라사우(Curacao), 신트마르턴(Sint Maarten), 아루바(Aruba) 자치령 등의 섬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자치령의 총면적은 약 993km<sup>2</sup>이다. 3개 도서는 2010년 10월 구주 본토에 편입되어 일반 자치 시와 같은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주요 도시로는 수도인 암스테르담(Amsterdam)을 비롯하여, 로테르담(Rotterdam), 헤이그(Hague), 위트레흐트(Utrecht) 등이 있다. 수도는 암스테르담이지만 정부와 각종 행정기관이 헤이그에 밀집해있고 높은 경제 수준과 안정된 정치로 선진국 대열에 있다. 12개 주(provincie)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덜란드는 라인강(네덜란드어:Rijn)·마스강(네덜란드어:Maas)·발강(네덜란드어:Waal)의 3대 하천 하류에 걸쳐있는 저지대 국가이다. 동부와 남단부에 약간의 구릉지가 있으며 남동단의 최고부가 322.5m에 불과하다. 낮은 저지대를 오랜 시기에 걸쳐 간척한 결과 전국토의 13%가 해발고도 1m 이하이고, 25%가 해면보다 낮으며, 최저부는 해면 아래 6.7m나 된다. 전국토의 28%가 경지이고 초원은 25%, 산림지대는 8%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카리브 해의 자치령도 포함한다.

과거에는 ‘네덜란드령 기아나’라는 이름을 가진 수리남은 물론 본국의 100여 배도 넘는 땅인 인도네시아도 ‘네덜란드 동인도’라는 이름으로 식민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인도네시아, 뉴기니, 수리남은 독립하였다.



## 【 지 도 】



## 【 현 황 】

현 황	내 용	비고
위 치	유럽 북서부	
경 위 도	약 북위 52.1326°, 동경 5.2913°	
면적(km <sup>2</sup> )	약 41,543 km <sup>2</sup>	
해안선(km)	약 451 km	
수도	암스테르담(Amsterdam)	
종족구성	네덜란드인 75%, 유럽계 10%, 기타 15%	
공용어	네덜란드어(Dutch), 프리지아어(Frisian, 일부 지역)	
종교	무종교 55.0%, 가톨릭 20%, 개신교 15%, 이슬람교 5%	
건국일	1581년 7월 26일(네덜란드 공화국 독립)	
국가원수	국왕 : 빌럼알렉산더르 왕 ※ 총리 : 마르크 뤼터	
정치	입헌 군주제, 의원 내각제	
통화	유로(€) (EUR)	
인구(명)	약 1,760만 명	2024년 기준
평균수명(세)	약 82세	
1인당 명목 GDP(\$)	약 62,800 USD	2023년 기준
수출규모(억\$)	약 8,300억 USD	
수입규모(억\$)	약 7,400억 USD	
인구밀도(명/km <sup>2</sup> )	약 423명/km <sup>2</sup>	

## **[네] 위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남동쪽 42km 지점에 위치한다. 위트레흐트가 라틴어로 ‘라인의 다리’를 의미하듯이 로마 시대에 이미 이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579년 이곳에서 위트레흐트 동맹이 맺어졌으며, 이에 따라 에스파냐에 대항하는 네덜란드 7개주가 하나로 단결하여 현 네덜란드 왕국의 기원인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을 탄생시켰다. 또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은 에스파냐 계승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예로부터 상업이 활발하였으며, 해마다 봄·가을에 열리는 무역박람회는 유럽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네덜란드 국유철도 본부와 대규모 철도공장이 있으며, 금속·기계·목재·식품·면공업 등도 발달하였다. 네덜란드의 가톨릭교 본산으로 대교구청이 있으며, 네덜란드 최고의 탑(110m)을 가진 돔 교회 등이 있다. 또 네덜란드 출신의 교황 하드리아누스 6세(1459~1523)의 출생지이며, 이를 기념하는 가톨릭 박물관이 있다. 그 밖에도 각종 박물관이 있고, 1636년 창립된 국립종합대학이 있으며 동쪽의 데빌트에는 중앙기상관측소가 있다.

## [네]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수도로, 2020년 인구는 872,680명이고,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면 약 250만 명에 달하는 서유럽의 대표적인 광역권 도시이다. 암스테르담은 17세기 이후부터 네덜란드의 무역·금융·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현재도 암스테르담은 지리적 접근성과 잘 갖추어진 교통망, 산업 인프라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유럽 내에서 최상위 수준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립스(Philips)와 다국적 금융 그룹 ING 등 다수의 대기업 본사와 유럽과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지사가 위치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식기반경제와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암스테르담은 12세기부터 작은 어촌마을로 개발되었다. 중세시대부터 상공업이 발달해 인구가 증가했고, 마을의 규모가 확대되어 운하도 건설되었다. 이후 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기(Dutch Golden Age)’에 유럽의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19~20세기에는 산업혁명으로 외지에서 노동자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인근에 현대적 외관을 갖춘 새로운 도시들도 건설되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함께 유럽의 대표적인 운하 도시로, 20세기에 들어 운하의 경제적 기능은 쇠퇴하였지만,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시민의 휴식처로 여전히 중요성을 갖고 있다.

16세기 말 스페인과 80년간의 독립전쟁을 벌이고, 19세기에는 나폴레옹 1세 그리고 20세기에는 나치스에 점령당하는 등 많은 격변을 겪은 도시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암스테르담은 자유와 관용 그리고 탈권위주의 문화가 자리 잡아, 180여 개 국적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국제적 도시로 발전하였다. 암스테르담에는 반 고흐 미술관, 안네 프랑크의 집과 알버트 쿠프시장(Albert Cuyp Market) 등 널리 알려진 명소들이 즐비하여, 매년 약 500~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와 관광도시이다.

## [네] 덴하그[헤이그]

네덜란드의 정식 수도는 암스테르담이나 실질적인 수도는 헤이그이며 정치의 중심지이다. 1248년 홀란트 백작가의 빌럼 2세가 성관(城館)을 구축한 것이 도시의 시초이다. 16세기에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이 성립되고 1618년 마우리츠 총통이 거성(居城)으로 삼은 이래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상공업도시가 아니었으므로 도시 자치의 성립이 뒤늦어, 나폴레옹 시대의 네덜란드왕 루이 보나파르트 때에 자치권을 획득하였다.

많은 국제회의가 열린 곳으로 1899년과 1907년에는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다. 1913년에 세워진 평화궁에는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상설중재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군 로켓탄의 발사 기지가 되었고, 연합국측으로부터도 많은 손해를 입었으나 지금은 '유럽 최고의 마을'을 자칭하는 나무가 많은 공원도시로 복원되었다. 시의 중앙에 있는 비넨호프(궁전의 內殿을 뜻함)에는 국회의사당·기사당(騎士堂:매년 9월 암스테르담으로부터 여왕이 참석하여 개원식을 거행하는 건물로 1250년에 건설되었음)이 있으며, 인접해 있는 국립미술관 마우리초이스에는 R.렘브란트(해부도), J.V.페르메르(터번을 쓴 소녀), P.포터(황소), P.P.루벤스, F.할스 등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그 밖에 근대 회화를 다수 소장한 시립박물관, 미니어처 도시 마드로담, 감옥박물관(여기에서 위트 형제 등 유명한 정치가들이 처형되었다), 스켈베닝겐 해안 등 볼 만한 곳이 많다. 1907년 만국평화회의 때 대한제국에서는 고종황제의 밀지(密旨)를 받은 이상설(李相高)·이준(李儁)·이위중(李瑋鍾) 3인이 헤이그를 방문,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불법성을 천명하려 하였으나, 일본과 영국의 횡방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준 열사는 순국하였다. 유해도 오랫동안 헤이그에 묻혀 있었으나 1963년에 환국, 서울 수유리 묘지에 안장되었다.

## **(네) 로테르담**

로테르담은 암스테르담에 이어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물류와 경제의 중심지로서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이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도시가 폐허가 되자 렘 쿨하스(Rem Koolhaas), 피에트 블롬(Piet Blom), 벤 판베르켈(Ben van Berkel)과 같은 네덜란드의 저명한 건축가들이 동원되어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로 도시를 재건하였다. 전통적인 건축물들이 유명한 암스테르담과는 달리 초현대식의 아방가르드한 건물들이 밀집하여 있는데, 약 165m 높이의 빌딩 마스토렌(Maastoren)이 대표적이다.

또한 에라스무스 다리(Erasmus Bridge) , 전통시장을 재건축하여 주상복합으로 구성한 마르크트할(Markthal),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건축물 중 하나인 드 로테르담(De Rotterdam) , 정육면체의 외관으로 유명한 주택단지 큐브하우스(Cube House)등은 필수 관광코스로 여겨질 만큼 독특한 건축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로테르담 중앙역(Rotterdam Centraal), 1960년 완공된 전망대 유로마스트(Euromast) 등이 유명하다.

### Ⅲ. 기관(현장) 방문 내용

#### 1. 루르 박물관(독, 에센, 졸버레인 탄광 산업단지)

● 방문일시 : 2024. 11. 04.(월) 10:00 ~ 12:00

##### ● 주요내용

졸버레인 탄광 산업단지는 독일 에센의 북쪽에 있는 광산 공업지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 서독이 단시일 만에 공업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루르 공업지대(Ruhrgebiet)의 중심에 있다. 한때 하루 평균 20,000톤의 석탄이 생산되던 세계 최대의 탄광 지역이었으며 가장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었다. 1972년 당시 서독과 대한민국 정부가 맺은 차관협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1977년까지 약 8000여 명의 광원이 파견되어 근무했던 지역으로도 알려졌으며 1986년에 폐광되었다. 1847년부터 시작된 이곳의 광산 역사가 폐광 이후에 국가적인 노력으로 보존되어 지금은 대규모의 광산 박물관이자 현대 예술센터인 루르 박물관으로 남았다.

184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졸버레인 광산 공업지대는 1986년 폐광하기로 결정된 이후 폐허로 남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당시 노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정부가 루르석탄회사(Ruhrkohle AG)로부터 전체 지역과 모든 시설을 구매함과 동시에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정하고 개조 및 보존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현재 12번 갱도를 중심으로 폐광 전 사용되었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광산의 모습을 견학할 수 있으며 루르 박물관에서 독일 공업의 발전상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에센 졸베레인 광산 공업지대는 유럽 중공업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좋은 예일뿐 아니라 세계 건축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유명한 건축가인 프리츠 슈프와 마르틴 크래머가 1920년대에 기하학적 원리를 도입해 이곳 공장 시설들을 건축했고, 1980년대에 영국인 건축가 노먼 포스터를 비롯한 세계 주요 건축가들이 개조사업에 참여하는 등 폐광 이후의 개조 및 보존 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졌다. 유럽 중공업의 산 증거물이자 세계 건축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 8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현재는 각종 박물관, 예술학교, 스튜디오, 디자인 연구소 등이 모여 있고 유럽 공업문화 체험 협회(ERIH)의 본부도 이곳에 있다.

## ● 관련사진



루르 박물관





루르 박물관

## 2. 란트샤프트 공원(독, 뒤스부르크)

● 방문일시 : 2024. 11. 04.(월) 14:00 ~ 16:00

### ● 주요내용

독일어로 란트샤프트(Landschaft)는 "생태" 또는 "풍경"을 뜻한다. 뒤스부르크는 독일을 대표하는 공업 도시였지만 산업구조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뒤스부르크는 란트샤프트 공원을 조성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란트샤프트 공원이 탄생하기 전, 이 지역에는 커다란 제철소가 있었다. 공장 부지의 면적은 약 2.3km<sup>2</sup>로, 이는 유럽의 작은 나라 모나코의 면적(1.95km<sup>2</sup>)보다 더 넓다. 제철소는 독일의 대표적인 철강기업인 티센(Thyssen)의 공장이었으나, 이후 티센이 뒤스부르크를 떠나면서 해당 부지는 철골 구조물들만 남긴 채 폐허로 남았다.

뒤스부르크에서는 이를 내버려 두지 않고 1999년 환경 공원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공장을 철거한 후 공원을 만들지 않고, 폐공장은 그대로 둔 채 개조하여 공원을 조성하였다. 70 미터 높이의 대형 용광로는 전망대로, 높은 건물 외벽은 암벽 등반장으로 개조했으며, 천장이 높은 건물 내부에 영화관을 만들어 음향의 질을 높였다. 이후 개조한 폐공장의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고 연못,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을 만들었다. 부지가 매우 넓었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들을 심을 수 있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마치 하나의 식물원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때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었던 공장이 '환경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 관련사진



란트샤프트 공원



란트샤프트 공원

### 3. 물류 ICT 전시회[네, 워트레흐트]

● 방문일시 : 2024. 11. 05.(화) 10:00 ~ 12:00

#### ● 주요내용

물류 ICT 전시회(ICT & Logistiek)는 네덜란드에서 매년 열리는 물류 및 IT 솔루션 관련 전시회이다. 주로 물류, 공급망 관리, 그리고 관련 기술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 행사로, 물류 부문에서의 디지털 혁신, 자동화, 데이터 관리 등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탐구하는 자리이며, 이 행사에서는 물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다양한 기술 및 솔루션을 소개된다.

ICT와 물류의 최신 기술 발전을 다루는 여러 업체와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솔루션(예: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접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자재 처리 장비, 창고 관리 솔루션, IoT 기반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과 같은 물류 혁신을 위한 솔루션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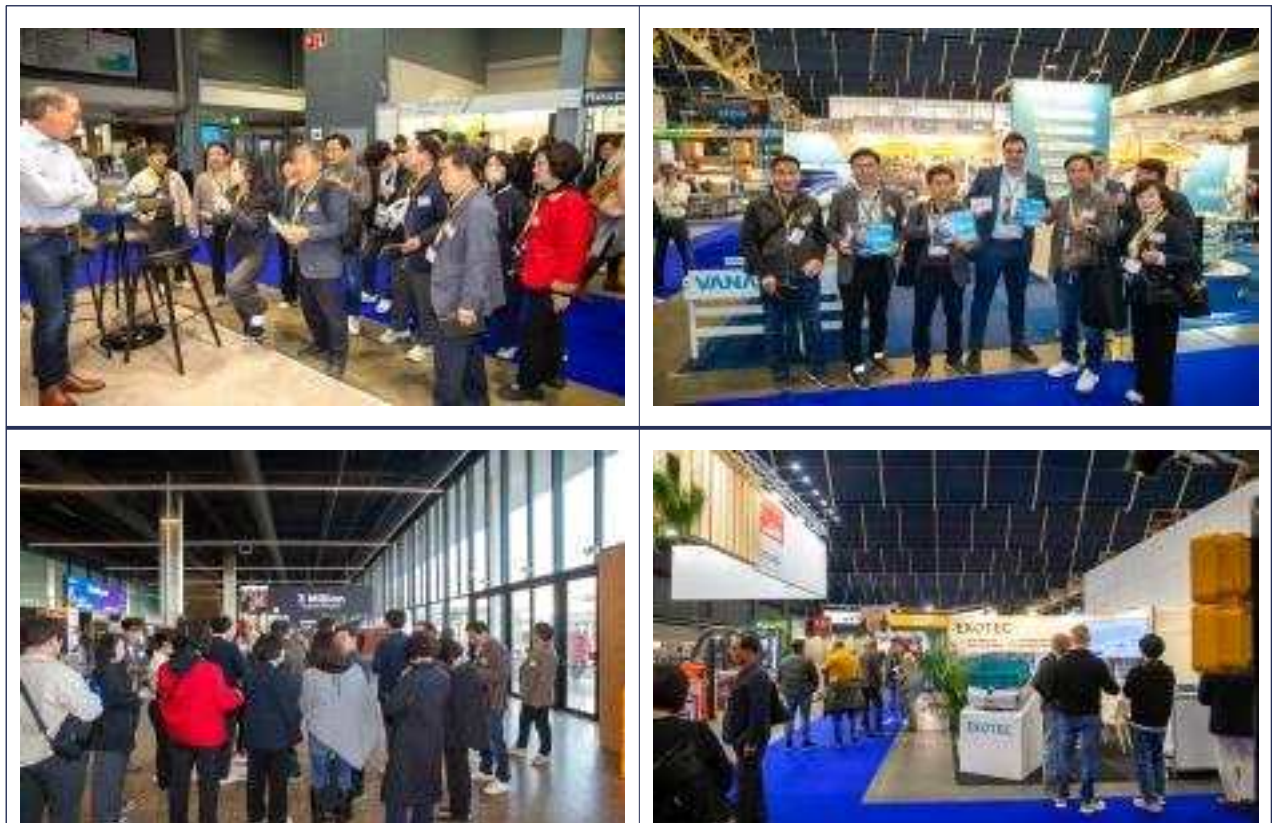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물류 및 IT 전문가의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업계의 최신 정보를 얻고, 혁신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다. ICT & Logistiek는 물류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최신 IT 기술을 통해 물류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물류 및 IT 융합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 관련사진



물류 ICT 전시회



물류 ICT 전시회

## 4. 하이네켄 박물관[네, 암스테르담]

● 방문일시 : 2024. 11. 05(화) 14:00 ~ 16:00

### ● 주요내용

하이네켄 박물관(Heineken Experience)는 하이네켄 맥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다. 1867년에 설립된 하이네켄의 첫 번째 양조장이었던 이 장소는 1988년까지 실제로 맥주가 생산되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하이네켄 브랜드의 역사를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탈바꿈되었다.

하이네켄 브랜드의 창립 역사, 하이네켄 가문, 그리고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에 대한 전시가 포함되어 있다. 하이네켄이 어떻게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과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다.

방문객은 맥주 양조 과정을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으며, 원재료(물, 보리, 홉, 효모)가 어떻게 맥주로 변하는지 시각적, 체험적인 전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양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기계를 볼 수 있으며, 맥주 생산의 모든 단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특히, "Be the Beer"라는 체험에서는 맥주가 되어 양조 과정에서 거치는 여정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VR) 및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하이네켄의 마케팅 전략, 광고 역사, 스포츠 및 음악과의 협업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하이네켄이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 하이네켄이 스폰서하는 스포츠 이벤트(특히 UEFA 챔피언스 리그)와 음악 축제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광고 캠페인과 마케팅 전략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관련사진



하이네켄 박물관



하이네켄 박물관

## 5. 반고흐 미술관(네, 암스테르담)

● 방문일시 : 2024. 11. 06.(수) 10:00 ~ 12:00

### ● 주요내용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암스테르담의 미술관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미술관들 중 가장 유명한 미술관 중 하나이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의 삶과 미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모아 두었다. 고흐의 사망 이후에 그가 가장 아끼던 남동생인 테오도르 반 고흐(Theodor van Gogh)가 소장하고 있던 고흐의 그림 700여 점을 기증받아 1973년에 미술관이 개관되었다. 고흐의 회화 200여 점, 데생 500여 점뿐만이 아니라 고흐의 자필 편지들, 그리고 동시대 화가들의 작품 600점들도 전시하고 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감자 먹는 사람들>, <자화상>, <침실>, <해바라기> 등이 있다.

### ● 관련사진



반고흐 미술관





반고흐 미술관

## 6. NEMO 과학 박물관[네, 암스테르담]

● 방문일시 : 2024. 11. 06.(수) 14:00 ~ 16:00

### ● 주요내용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초록색 배 모양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과학 전문 박물관이다. 네모(NEMO)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며 그 이름을 쥘 베른의 소설 《해저 2만 마일》에 나오는 네모 선장의 이름에서 착안하였다. 건물의 설계는 파리의 퐁피두 센터와 오사카 간사이 공항 터미널 등을 설계해 유명해진 이탈리아 출신 건축가 렌초 피아노(Renzo Piano)가 맡았고, 물 밑으로 연결되는 터널 위에 선착한 배 모양으로 지어졌다.

내부에는 음향, 시각, 의학, 유전공학, 물, 금속, 화학, 인간의 사고 등 현대 과학과 기술을 한곳에 모아 놓았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체험 위주로 과학을 설명하는 부스들이 종종 설치되어 있어 쉽게 과학의 원리를 체득할 수 있다.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거나 화학 실험을 하고, 미디어 센터에서 자신만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배의 갑판에 해당하는 박물관 옥상은 암스테르담시(市)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으로도 유명하다.



● 관련사진



NEMO 과학박물관



NEMO 과학박물관

## 7. 토마토월드[네, 덴하그]

● 방문일시 : 2024. 11. 07.(목) 10:00 ~ 12:00

### ● 주요내용

토마토월드(Tomato World)는 덴하그 근처의 웨스트란트 지역에 위치한 농업 체험관이다. 이곳은 특히 토마토 재배와 관련된 최신 기술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을 소개하는 곳으로, 네덜란드의 선진 농업 시스템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토마토월드는 최첨단 온실 기술과 지속 가능한 재배 방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자동화 시스템, LED 조명을 통한 작물 재배, 그리고 친환경적인 물 사용과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물 절약과 화학 비료 및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아울러, 토마토 재배 과정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한 품종의 토마토들이 어떻게 자라고, 그 품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다.



● 관련사진



토마토 월드



토마토 월드

## 8. 마켓홀[=마르크트할, 네, 로테르담]

● 방문일시 : 2024. 11. 07.(목) 14:00 ~ 16:00

### ● 주요내용

마르크트할로 불리며, 롤케이크를 연상시키는 흥미로운 건물의 전통 시장이다. 2014년에 개장한 이곳은 아름다운 벽화와 전면 유리창으로 채광을 높인 건물 안에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 고기, 해산물, 치즈 같은 식재료를 판매하는 점포들과 대형 슈퍼마켓, 꽃집, 제과점, 레스토랑 등 100개가 넘는 매장이 입점해 있으며 228개의 아파트도 같은 건물에 있어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마르크트할은 그 자체로 로테르담의 재생과 도시 재개발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 ● 관련사진



마켓 홀





마켓 홀

## 9. 예술 전시회[독, 쾰른]

● 방문일시 : 2024. 11. 08.(금) 10:00 ~ 12:00

### ● 주요내용

아트 쾰른(Art Cologne)은 독일 쾰른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 아트 페어로, 세계에서 열리는 아트 페어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 1967년, 쾰른에서 슈피겔 화랑(Galerie der Spiegel)을 운영하던 하인 슈툼케(Hein Stünke)와 츠비르너 화랑(Galerie Zwirner)를 운영하던 루돌프 츠비르너(Rudolf Zwirner)의 주도로 18개 화랑들이 모여 쿤스트마르크트 쾰른 '67(Kunstmarkt Köln '67, 예술 시장 쾰른 '67)을 시작했다. 이것이 아트 쾰른의 첫 발걸음인데, 그들의 목표는 세계 미술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환되던 시점에 젊은 독일 예술가들의 새로운 미술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것이었다.

세계 미술 시장에 강한 인상을 남기며 등장한 아트 쾰른은 독일의 라인(Rhein) 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미술관과 화랑들의 지지를 받으며 발전해 전후 미술과 현대 미술 거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아트 쾰른은 스위스의 아트 바젤(Art Basel), 미국의 아트 시카고(Art Chicago), 프랑스의 피악(FIAC), 에스파냐의 아르코(ARCO) 등과 함께 세계의 주요 아트 페어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 관련사진



쾰른 예술 전시회



쾰른 예술 전시회

## 10. KOTRA 무역관[독, 프랑크푸르트]

● 방문일시 : 2024. 11. 08.(금) 16:00 ~ 17:00

### ● 주요내용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대한민국의 국영 무역 촉진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한 해외 사무소이다. 이 무역관은 독일 및 유럽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역할을 한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경제 중심지이자 유럽의 금융 허브로, 독일 및 유럽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위치이다.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한국 기업들이 독일 및 유럽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 관련사진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11. 괴테 하우스[독, 프랑크푸르트]

● 방문일시 : 2024. 11. 09.(토) 10:00 ~ 12:00

### ● 주요내용

괴테는 1749년 8월 28일 12시 정각에 이곳에서 태어나 여동생 코넬리아와 함께 성장하였으며 괴테에 대한 독일인들의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듯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을 피해 괴테의 유품들을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 두었고, 폭격에 의해 파괴된 건물은 4년에 걸쳐 복구시켜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관리하고 있다.

4층으로 된 건물 내부의 20여 개의 방은 당시 상류층이었던 괴테와 그 가족의 삶의 흔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잘 보존되어 있다. 1층 부엌에는 괴테가 키가 작은 어머니를 위해 직접 고안한 사다리 겸 의자가 있고, 2층에는 중세 악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음악의 방’과 파티와 손님맞이를 위한 방이었던 ‘북경의 방’이 있다. 3층에는 괴테가 태어난 방과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천문시계가 있다. 4층에는 괴테가 ‘파우스트’ 1편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 수많은 작품들을 집필한 방이 있는데, 항상 서서 글을 썼던 그가 사용하던 높은 책상이 있다.



● 관련사진



괴테 하우스



괴테 하우스

## 12. 웨스트타펜 타워 및 마인우퍼 공원[독, 프랑크푸르트]

● 방문일시 : 2024. 11. 10.(일) 10:00 ~ 12:00

### ● 주요내용

웨스트타펜 타워(Westhafen Tower)와 마인우퍼 공원(Mainuferpark)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두 가지 상징적인 장소로, 각각 현대적인 건축물과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대표한다. 웨스트타펜 타워는 프랑크푸르트의 현대적인 도시 환경을 상징하는 반면, 마인우퍼 공원은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보여준다. 이 두 장소는 각각 도시의 활발한 비즈니스와 여유로운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프랑크푸르트가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도시임을 상징한다. 이 두 명소에서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도시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할 수 있다.

### ● 관련사진



웨스트타펜 타워 및 마인우퍼 공원





웨스타펜 타워 및 마인우퍼 공원

## IV. 방문 후기 및 향후 활용방안

### ● 루르 박물관 [작성자 : 박교상, 김낙관, 김재우]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석탄광산 및 석탄공장을 이용하여 옛 독일의 석탄산업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건물과 시설물의 규모가 거대하였고 건물 자체가 산업 유산이라 할만하다. 과거의 산업 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현대적인 전시 기법과 디자인을 결합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루르 지역의 산업사뿐만 아니라 자연사(지질학적 특성과 생태계) 및 루르 지역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전통까지 살펴볼 수 있는 전시물들로 꽉 채워져 있었고, 루르 지역의 산업화가 독일에 끼친 영향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특히, 산업화가 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전시하여 환경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거역할 수 없는 산업화의 열풍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겪었던 어려움도 가늠해보았다.

우리 시에도 과거의 산업 유산이나 오래된 건물, 공장 부지 등이 남아 있다. 이를 단순히 철거하거나 방치하는 대신, 루르 박물관처럼 도시 재생의 기회로 삼아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과거의 산업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예술, 교육,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현대적이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면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 ● 란트샤프트 공원 [작성자 : 이명희, 장세구]

과거 제철소였던 란트샤프트 공원은 과거의 산업 시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그 대비가 인상적이었다. 거대한 철강 구조물과 공장 설비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주변에는 녹색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이 공원의 매력을 배가시키며, 산업 유산이 예술적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좋았으나 곳곳의 길쭉한 구조물(통로 및 복도)은 다소 음습한 느낌도 주었다.

과거 제철소의 시설들을 단순히 남겨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더하였다. 예를 들어, 옛 고로(高爐)는 전망대로 활용되고, 용광로와 같은 시설들은 등반 시설이나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다만, 란트샤프트 공원의 야경은 공장의 철골 구조물들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마치 예술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가이드의 말은 들었으나, 일정상 직접 보지 못해 아쉬웠다.

루르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산업 유산을 도시 재생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해볼 수 있었다. 산업 유산을 예술적 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시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줄 것이다. 또한, 란트샤프트 공원이 산업 시설을 자연과 접목시켰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도심 속 녹지 공간을 더욱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의 오래된 공장 부지 등을 이용하여 녹지와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도시 경쟁력에 도움을 줄 것이다.

란트샤프트 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도시 재생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우리 시에 시사점을 준다. 산업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물류 ICT 전시회 [작성자 : 소진혁, 김원섭, 정지원]

전시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물류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였다. 물류 관리 시스템부터 자동화된 창고, 스마트 운송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 가능한 기술들이 있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들이 물류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많은 부스에서 지속 가능한 물류 솔루션을 강조했다. 전기 트럭, 친환경 포장재,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된 운송 경로 설정 같은 기술들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물류 산업도 환경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런 기술들이 단순한 혁신이 아닌, 미래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류와 스마트 시티 개념이 결합된 여러 솔루션도 흥미로웠다. 도시 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IoT 기반의 스마트 물류 허브가 구축되어 도심에서의 물류 이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업체들이 있었다. 이는 도시 생활의 효율성을 높이고, 혼잡을 줄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전시회에서 본 IoT와 AI를 활용한 물류 솔루션은 우리 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 차량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교통 체증을 줄이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창고나 자동화된 배달 시스템은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곧바로 우리 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속 가능한 물류가 강조된 만큼, 우리 시에서도 전기 트럭과 같은 친환경 운송 수단의 도입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도심 내에서는 전기 배달 차량이나 친환경 자전거를 활용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배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류 창고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번 국외 출장 참석자들은 전시회 이후 도시 물류와 공공 정책과의 연계성을 논의를 해보았다. 우리 시에서 물류 및 교통 정책이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 교통 혼잡 해소와 연결되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물류 전문가 및 기업들과 공공 기관이 협력해 미래의 도시 물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 오래된 구 시가지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신공항 배후 지역인 장천면과 산동읍에 이 같은 정책 방향으로 물류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한다면, 우리 시의 경쟁력을 크게 증가시킬 방안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 ● 하이네켄 박물관 [작성자 : 박교상, 김낙관, 김재우]

하이네켄 박물관은 단순히 맥주 제조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하이네켄 브랜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하이네켄의 시작과 성장을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촉각적 요소로 구분하여 보여주며, 관람객이 브랜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또한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확장되었고, 지역 사회와 맥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었다.

박물관에서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맥주 제조 공정을 체험하거나, 가상 현실(VR)을 통해 하이네켄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체험형 전시는 방문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기억을 더욱 강하게 남기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맥주를 직접 시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 전체 체험을 완성하는 느낌이었다.

하이네켄 박물관처럼 우리 시에도 지역의 산업 또는 브랜드(영도벨벳, 농심, 벡셀 등)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산업과 지역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미산업투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지역 브랜드의 역사와 체험형 관광의 힘으로 산업이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시도 지역의 산업, 역사, 문화를 창의적으로 체험하고 배우는 공간을 조성한다면, 관광 및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반고흐 미술관 [작성자 : 강승수, 이정희]

고흐의 초기 작품부터 후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작품들을 순차적으로 감상할 수 있었으며 그의 대표작인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감자먹는 사람들' 등은 직접 볼 수 있었다. 반 고흐 박물관은 단순히 그의 작품만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그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주는 공간이기도 했다. 반 고흐의 편지, 고뇌, 정신적 고통, 그리고 그의 열정이 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며, 현대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와 상호작용형 콘텐츠(오디오 안내 단말기)를 통해 작품 감상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예술 전시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미아트페어 등 예술 전시공간에 증강 현실(AR)이나 가상 현실(VR)을 통해 전시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거나, 관람객이 작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설치물과 상호작용형 콘텐츠를 도입하면, 방문자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우리 시에서도 지역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창작·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로 <구미청년상상마루>와 같은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가들과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단순히 예술을 전시하는 곳을 넘어,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커뮤니티 허브로 발전시킨다면 도시의 문화적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 ● NEMO 과학 박물관 [작성자 : 김낙관, 김재우]

과학 기술은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시민들이 과학 기술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은 과학 기술의 기초 다지기에 유용하다.

네모 박물관은 방문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물리, 화학, 생물학 등의 과학 원리를 다양한 전시물로 설명하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에 흥미를 느끼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입장료가 3만원 가까이 하는데, 입장료가 저렴한 국내의 국립과학관에 비하면 볼 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격대비 많지 않았으나, 방문한 날의 관람객의 수는 적정하여 관람 편의는 좋았다.

네모 박물관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과학관 야외에서 라이브 음악, 야외 영화, 요가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 시에도 구미과학관이 있고 몇 가지 실내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 번만 가보면 두 번은 가고 싶게 만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물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특히, 성인들도 체험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과학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아 아쉬운데, 네모과학관의 경우 Humania 코너에서 초등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즐기고 익힐 수 있는 전시물과 게시물이 있었으며, 루프탑에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고 주위의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아 음식과 음료(맥주포함)를 즐길 수 있었다. 동락공원의 풍광을 즐길 수 있게 구미과학관의 루프탑 공간 구성을 다채롭게 하고 작은 카페 등을 꾸미면 성인들을 포함한 과학관 관람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 ● 토마토월드 [작성자 : 양진오, 신용하]

토마토월드는 단순한 농장이 아닌, 스마트 농업과 식량 생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물 소비를 최소화(일반 토마토 농장에 비해 1/10 이상 물 절감)하고, 비료 사용을 줄이며, 폐기물(암석배지 및 이산화탄소)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눈에 띄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의 농업을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보였다.

토마토월드는 교육 공간이기도 했다. 기술이 어떻게 농업에 적용되는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농업 방식이 미래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체험형 전시와 투어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토마토월드의 스마트 농업 모델은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수직 농업이나 수경 재배와 같은 농업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내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시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에 초점을 맞춘 교육 및 체험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농업과 기술의 접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시도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로컬푸드 판매점 등 로컬푸드 순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식량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지역 농민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쉽게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미팜 같은 유통 채널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 ● 마켓홀 [작성자 : 이명희, 장세구]

로테르담의 마르크트할(Markthal)은 건축적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결합한 대표적인 현대 시장이다. 2014년에 완공된 이 건축물은 전통적인 시장과 현대적 주거 공간, 상업시설 및 지하주차장이 결합된 복합 시설로, 유리 외벽을 통해 내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며 시각적 즐거움을 주었다. 식재료를 판매하는 상점들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식문화 체험(일식, 중식, 베트남식 등)이 가능하다.

마르크트할은 외관부터 매우 인상적이었다. 거대한 아치형 건물 안에 식료품 시장이 자리 잡고 있고, 건물 내부 천장에는 화려한 대형 벽화가 그려져 있어 아름답고 특이했으며, 전통 시장과 주거 공간이 같은 건물에 위치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실험적인 아치형 건물로 건물 중앙에 빈 공간이 많아 공간 활용성은 다소 떨어져 보였다.

이곳은 과거에 단순한 시장에 그쳤지만, 현재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도심에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에서도 오래된 시장이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상업과 거주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르크트할의 천장 벽화처럼, 대규모 건축물에 공공 예술을 접목함으로써 건물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아울러, 지역 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동시에 다양한 세계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쾰른 예술 전시회 [작성자 : 김춘남, 주은희]

아트 쾰른(Art Cologne)은 1967년에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 박람회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갤러리와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작품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20여개국, 200여 갤러리)

아트 쾰른에서는 전통적인 회화와 조각뿐만 아니라 설치 미술, 영상 아트, 퍼포먼스 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나볼 수 있었으며, 전시회는 예술이 단순히 감상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실감한 공간이기도 했다. 작품이 판매되고, 수집가와 예술가 간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술과 시장의 상호작용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전시 공간 자체가 개방적이며 넓은 인상을 주어서 작품 감상에 불편함이 없었다. 작품의 설치 방식, 조명, 관람 동선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아트 쾰른과 같은 국제적인 예술 행사는 도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나라의 갤러리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구미아트페어를 5년째 개최하고 있는데, 미술작품 외에 다양한 공연 등의 문화 행사를 병행하여 꾸준히 유지해나간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우리 시도 예술적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미아트페어와 같이 국내외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 예술가들에게도 국제적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트 쾰른에서 본 것처럼 예술품이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와 수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술품 경매나 갤러리 협업 등을 통해 지역 예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 ● 프랑크푸르트 KOTRA 무역관 [작성자 : 소진혁, 김원섭, 정지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1966년에 설립되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 관문이 되기 위해 개소한 것으로, 유럽 경제의 중심지 중 하나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내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 활동을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 기업들에게 독일은 까다로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시험대이다.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유럽 내 한국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시장 조사, 규제 및 세금·법률 정보 제공, 수출 및 투자 상담 등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한국 기업들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전시회 참여, 현지 기업과의 미팅 등 다양한 교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 특히 독일의 높은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기준에 맞춰 한국 기업들이 제품을 현지화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한다.

이상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지원이며, 우리 시에는 중소기업들이 많다.(2023년 9월 기준 689개, [출처:공공데이터포털]) 유럽 진출을 기획하는 우리 시의 중소 기업들이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 및 구미중소기업협의회 등의 적극적 안내가 필요하다.

## ● 괴테 하우스 [작성자 : 강승수, 이정희]

괴테 하우스는 문학가이자 법률가, 철학자였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생가로, 괴테는 이곳에서 1749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유년기와 청년 시절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공습으로 인해 크게 파괴되었지만, 전쟁 후 4년에 걸쳐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복원되었다. 특히 그가 사용했던 책상이나 펜, 일기장 등 수 많은 일상 용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경험은 괴테라는 인물을 인간적으로 실감하게 해주었다.

내부는 당시의 가구와 장식품들로 채워져 있었고, 유복하게 자라난 괴테의 상류층 가정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집필 공간이나 거실은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다. 특히, 집필 공간은 그가 작품을 구상하고 창작하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기 때문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를 좋아하는 문학 애호가들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일 것이다.

괴테 하우스는 과거의 장소이지만 현대에도 괴테의 문학이 계속해서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과거의 유산을 현대적인 예술 활동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괴테의 작품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전시회, 연극 공연 등의 기획과 같이,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야은 길재, 단계 하위지, 초성 황기로, 영화 감독 김유영, 국악인 박록주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예술적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인물은 하나하나 기리기보다는, 학자와 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역사 교육과 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구미시성리학역사관과 구미문화재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와 연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나, 문학, 예술, 역사에 대한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유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 웨스타펜 타워 및 마인우퍼 공원 [작성자 : 김준남, 추은희]

웨스타펜 타워(Westhafen Tower)와 마인우퍼 공원(Mainuferpark)은 프랑크푸르트의 상징적인 현대 건축물과 도시 공원으로, 각각 도시 재개발과 녹지 조성의 효과를 보여준다.

웨스타펜 타워는 2004년에 완공된 현대적인 고층 빌딩으로, 프랑크푸르트 도심에서 서쪽에 위치한 웨스트항구(Westhafen)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이 지역은 과거 상업 항구로 사용되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 산업 활동이 감소하면서 재개발이 필요했다. 프랑크푸르트시는 이 지역을 주거 및 상업 지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웨스타펜 타워와 주변 건물들을 세웠다.

웨스타펜 타워의 독특한 디자인은 둥글고 유리로 덮인 외관이 특징으로, 건물 표면이 벌집 모양의 격자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빌딩은 높이 109.8미터로 그린 빌딩 인증(에너지 절감, 효율적 물 사용, 탄소 배출 저감 등)을 받는 등 친환경적 요소가 강조되었다.

웨스타펜 타워는 단순한 고층 빌딩 그 이상으로, 현대적인 건축미와 프랑크푸르트의 재개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이다. 특히, 웨스타펜 타워가 있는 지역은 과거 산업항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잘 꾸려져 있는 도시 재생의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 시에서도 오래된 산업 지구나 활용도가 낮은 지역을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통해 재개발할 수 있다. 아울러, 친환경 소재와 에너지 효율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친환경 인증 건축물 도입을 유도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웨스타펜 타워 주위의 상가지역, 주거지역 배치와 주차장 배치 및 운영은 원평동 등 구시가지 일원의 재개발에 참고할만하다.

한편, 마인우퍼 공원은 프랑크푸르트의 마인강변을 따라 조성된 도시 공원으로, 강을 따라 조성된 다양한 공원들과 연결되며, 특히 프랑크푸르트의 강변 문화와 예술적 활동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19세기 산업화 이후로 도시가 빠르게 확장되었고, 도시 내 녹지와 공원의 필요성이 커졌다. 마인강 주변의 공간을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과정에서 마인우퍼 공원이 탄생했다. 특히 이 지역은 19개 박물관이 모여있는 박물관 강변(Museumsufer)으로도 유명하다.

마인우퍼 공원은 시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공원에서 마인강을 따라 걷거나 뛰고, 자전거를 타거나 조정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박물관과 강변을 연결하는 이곳은 문화 시설들과 자연의 조화가 돋보였다. 또한 이 공원은 단순히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와 축제의 중심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강이나 하천변, 또는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였다. 마인우퍼 공원처럼 우리 시의 낙동강 체육공원 및 동락공원 등을 단순한 체육과 휴식 공간이 아닌 문화 예술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장소로 발전시키면,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 ※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공공데이터(정부공식 사이트)



## V. 개인별 소감 및 의견

### 박교상 의원

루르박물관은 현재는 가동되지 않는 폐광산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 하였으며, 독일의 석탄 산업의 전반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루르지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자연 유산을 전시하는 종합 박물관의 성격을 보였다. 여느 박물관과 전시 기능은 유사하나,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박물관으로서 큰 구조의 변경이나 가공없이 그 시절 공장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관람 편의를 위해 조성된 시설도 과거 공장의 모습과 색감(석탄 컨베이어 콘셉트의 외부 에스컬레이터 등)에 이질감 없이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산업 도시 구미와 독일의 에센은 산업분류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공단지역의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루르 박물관과 같이 보존과 첨단 기술의 조화 그리고 공간의 활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란트샤프트 공원은 흔히 대한민국의 자연 그대로를 활용한 생태공원과는 차이점이 있었다. 산업구조의 변경 등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게 된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고는 하나, 폐공장을 철거하여 재분양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폐공장과 생태의 결합은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시의 보세장치장에서 아트페어나 문화축제의 장소를 활용하는 사례처럼 기존의 공간을 보존하며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ICT&Logistics 전시회는 물류 유통의 자동화, 디지털화, 로봇화 등을 주제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각국의 물류 유통의 최신 혁신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전시회이다. 넓은 공간에 가득찬 회사와 제품 시연과 기술 체험을 바탕으로 한 홍보는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데 충분했다. 우리 시에서도 항공방위물류박람회, 3D프린팅코리아엑스포 등 전시회와 박람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의 기술력과 구미 소재 대학, 신공항 배후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전시회·박람회를 유치,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

구미에도 OB맥주 제조공장이 있어 공장 견학을 했던 경험 있다. 하이네켄 박물관과 같이 명소로 발전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하이네켄 박물관은 하에네켄 맥주의 역사와 제조과정 설명, 체험, 시음 등의 구성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는 선산, 산동 등에서 주조되는 전통주 양조장이 있으며, 전통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명소 개발을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73년 개관한 반 고흐 미술관에는 반 고흐의 회화, 소묘, 개인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흐의 생과 성장 과정을 단계별로 전시하고 있었다. 반 고흐 미술관에는 멀티미디어 가이드를 대여할 수 있는데, 이는 오디오뿐만 아니라 화면 속에서 작품과 설명을 함께 보고 들을 수 있고, 번호를 통해 쉽게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번역 오디오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역사자료관 등 우리 시의 전시기관에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서 올해도 정수대전(제 25회)이 열렸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작품의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수대전의 미술, 서예·문인화, 사진 등 역대 수상작들의 상설 전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였다.

우리 시의 구미과학관은 기초과학 원리뿐만 아니라 3D천문우주 영상 체험관, 4D영상관 등 첨단 과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이었으며 NEMO 과학박물관과 비교해도 손색없다 생각된다. 다만, 구미과학관 활성화와 많은 이용객 유치를 위해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으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나, 첨단 재배기술과 시스템 적용을 통해 세계 3위의 농산물 수출 강국이 되었다. 그중 유럽 전역에 공급하는 토마토 재배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인데, 토마토 월드에는 네덜란드의 지리적 한계와 용수 부족,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공급문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원 재활용과 스마트팜 기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는 미래의 환경문제, 식량문제 등 전세계 인류 공통으로 당면 위기에 직면해있다. 우리 시도 자원재활용과 스마트농업에 대한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로테르담 마켓홀은 독특한 외형과 주거 및 상업시설이 결합된 네덜란드 전통시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또한 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기술과 자연채광,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친환경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자아냈다. 전통시장이면서 일반 음식점에서 고급 레스토랑까지 입점해 있으며, 한국 음식점도 눈에 띄었다. 우리 시도 또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마켓홀 벤치마킹을 통해 느낀 바를 우리시 전통시장 살리기에 접목할 수 있게 힘쓰도록 하겠다.

구미시에서도 구미국제아트페어가 2023년 제5회 째를 맞이했다. 독일의 ‘컬른 예술전시회’와 같이 ‘구미 아트페어’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소통과 성장의 무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준 높은 작품 전시를 통해 구미 시민의 문화 소양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구미가 낭만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로 프랑크푸르트 코트라 무역관은 독일의 현황과 경제를 분석하고, 독일 진출 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다. 구미에도 코트라 대구경북지원단 분소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타지에서 고생하는 코트라 임직원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구미지역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구미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괴테 생가를 방문하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이다. 현재의 괴테 생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붕괴된 것을 전후에 재건한 것이지만, 당시의 모습이 잘 재현되어 있고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독일의 관광 명소였다. 우리 시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잘 보존하고, 유품 등 모집과 전시를 통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 네덜란드의 수변공원은 개발보다는 보존에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한다. 강 옆으로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여 길을 따라 러닝하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고, 강에서 카약과 조정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우리 시의 낙동강 체육공원, 동락공원도 마인우퍼공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많은 구미시민들이 낙동강의 좋은 풍경을 바탕으로 생활 속 힐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존 환경과 어우러진 공원 개발·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루르 박물관에서의 경험은 매우 의미 깊었다. 이곳에서는 파독 광부들의 애환과 고난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전시와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다. 많은 한국인들이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외화를 벌기 위해 독일로 떠났던 역사적 사실을 돌아보며 그들의 고생과 헌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의 밑바탕이 바로 이들 광부들의 고난을 통한 그들의 피와 땀에 의한 것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 당시 광부들이 겪은 어려운 생활 환경과 먼 타국에서의 고독, 또 가끔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견뎌온 고통은 현대 한국 사회가 경제적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했다.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이들의 기여를 더욱 널리 알리고 존중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생을 잊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물류 ICT 전시회에서는 선진 물류 시스템과 장비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다양한 물류 기술과 혁신적인 장비들이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물류 관련 시스템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물류 산업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 생활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첨단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 시의 화물 주차장 시스템이나 물류 장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경험은 시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류 관련 프로젝트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며, ICT 기반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NEMO 과학박물관에서의 체험은 우리 시의 구미과학관에 접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다. NEMO 과학박물관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물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이러한 전시물들은 과학의 재미와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체험 중심의 학습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과학적 사고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그곳에서 제공하는 실험과 교육적 활동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직접 참여·체험하고 느끼며 배우는 중요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구미과학관에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과학을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 특히, 과학의 기본 원리부터 최신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의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과학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앞으로 구미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구미과학관에서도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미래의 과학 기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한, 토마토 월드에서의 경험도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토마토 월드는 자동화된 농업 시스템과 선진화된 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전시가 인상적이었고, 이를 통해 우리 시에도 농업의 현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특히, 농업의 시작점인 씨앗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씨앗은 단순히 농작물의 시작이 아니라, 미래의 생명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경험은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나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도입해 농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선진 농업 기술을 우리 지역 농업에 접목시키는 일은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여러 경험들은 우리 시의 경제,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경험한 교훈들은 지역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지역에 도입하고, 시민들이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시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웠던 루르 박물관이었다. 버려진 회사 부지와 탄광을 재활용하여 박물관을 만들자는 계획력과 실제로 그것을 실현해 내는 정부 관계자 및 박물관 운영재단측의 실행력이 놀랍다. 우리가 방문하였을 때 10여명의 현지 초등학생들이 담당 선생님과 현장 학습을 진행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박물관 복도 한 켠에 자리잡고 바닥에 앉아 광부의 삶과 직업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었다. 책에서만 보는 직업의 명칭과 작업 사진이 아니라, 직접 그 직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현장에서 직업을 체험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우리 교육도 저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았다.

물류 ICT 전시회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었다. 일반 기업의 물류에 집중된 전시회여서, 항공과 관련된 물류 전시가 없어서 매우 아쉬웠다. 다만, 빠른 걸음이 불가할 정도로 관람객이 많았으며, 전시 상품과 참여 기업도 많은 점은 부러움을 자아냈다.

하이네켄 박물관은 많은 관광객이 있었는데, 평일이었음에도 박물관 투어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서는 1층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기억에 남는 점은 1층 화장실이었다. 화장실에 남성만을 위한 소변기는 없고 모두 문이 있는 20개의 닫힌 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화장실 문에 남성, 여성, 남성-여성 반반 표시(기타 성을 의미)의 세 가지의 표시 그림이 있어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남성, 여성이 모두 같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다. 화장실 안에서 여성을 마주쳐 어색하였으나, 우리 나라처럼 화장실 이용을 위해 줄을 서는 여성을 볼 수가 없었다.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설계된 점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다. 시음장소 역시 멋진 클럽처럼 꾸며져 있었으며 수 많은 사람들이 시음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또 시음을 즐기고 있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을 보니 우리 시에 있었던 옛 OB 맥주 공

장이 떠올랐다. 계속 우리 시에 있었다면 우리 시의 멋진 관광 자원 중 하나가 되었을거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다.

25년전에 개관한 민간 과학관인 NEMO박물관은 이번 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설이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관이었다. 그야말로 놀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구들이 즐비하였으며, 기초과학에 대한 설명과 체험을 충망라한 듯한 시설이었다. 기구와 시설물, 계단은 주로 목재를 활용하여 따뜻한 느낌을 주었으며, 특히 계단 난간의 추락을 위해 그물망처럼 생긴 스틸 추락방지망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 시에도 적용할 만한, 적용하고 싶은 안전 시설이었다.

물과 햇빛이 적은 자연 환경을 가진 네덜란드는 토마토 월드 같은 스마트팜이 발달할 수 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네덜란드와 같이 지열과 풍력같은 재생에너지의 이용이 중요한데,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아직은 미흡한 우리 시에서 스마트팜은 대규모로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다.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 중 하나인 로테르담의 마켓홀은 건물 모양에서부터 감탄을 자아냈는데, 전통 시장 상공의 주택과 사무실은 소음과 냄새에 피해가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 건물인 마켓홀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우리 정서에 부합해 우리 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퀵른 예술전시회에서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예술전과 구미아트페어의 차이를 실감하였다. 지하부터 2층까지 관람하였는데, 층층마다 굉장히 넓은 전시 공간에 수 많은 전시가 이어졌으며, 전시마다 쾌적하고 느긋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 관람객의 수는 많았지만, 전시공간이 넓다 보니 느긋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전시부스 중 한국인 유학생이 운영하는 곳은 한국적 느낌을 가미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어 세계적 행사에 우리 작품도 경쟁력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역시 기억에 남는다. 러시아로부터 전체 에너지(가스, 석탄, 원유 등)의 30% 이상을 의존하는 독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에 큰 타격을 받아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알게 되었다. 유럽국가 중 최초의 탄소중립선언국가인 독일은 전기 생산 비용의 효율성을 희생해서라도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미래 지향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제조업 육성을 기조로 삼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에 독일은 이미 제조업 강국이지만, 더 나은 도약을 위해 한발 움츠린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유럽 진출을 원하는 관내 기업에게 KOTRA 대구경북지원단 구미분소를 적극 안내할 필요를 느꼈다.

괴테 하우스 또한 많은 관람객이 있었다. 우리 지역의 박정희 생가가 문득 떠올랐다. 박정희 생가와 민족중흥관, 역사자료관이 모여있는 상모사곡동 일련의 시설들은 괴테하우스와 비교해 전혀 부족함이 없는 데도, 관람객 유치가 괴테 하우스에 못미치는 듯하여 매우 아쉬웠다. 박정희 생가 등의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마인우퍼 수변 공원을 보고서는 우리 시의 수변 공원이 오히려 세계적인 곳임을 느꼈다.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이 우리 시설에 비해 미치지 못하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의회 의원들을 구미로 초청해, 구미의 수변 공원인 낙동강 체육공원과 동락공원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다만, 기존의 항만 기둥을 그대로 이용하여 기둥 위에 주택을 건축한 주택가는 인상적이었다. 쓰임이 다하여 무조건 철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물의 재사용을 고민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마음가짐과 기술이 멋지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출장계획수립에서부터 준비과정, 중간점검 및 최종 마무리단계까지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함께하는, 내실있는 출장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리 시의 미래를 다시 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우리가 방문하였던 유럽의 도시와 시설들은 규모가 작은 도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박하고 검소한 느낌이어서 인상적이었다. 소박하게 보이지만 거리 대부분에 전선 지중화 작업이 매우 잘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봇대와 신호등 등의 전선들이 지중화가 되면 안전사고 발생율이 낮아지고 거리 미관이 개선된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겉은 수수하지만 내부는 화려한, 오래된 궁전을 보았던 느낌이었다. 다만, 호텔, 식당, 마트 등의 서비스 시설의 경우 위생상태와 유지보수 상태가 아쉬웠다.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은 받을 수 없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의 화장실은 우리나라의 화장실과 비교하면 시설 수준과 관리 상태가 낮았다. 관용시설의 화장실은 그래도 관리 상태가 괜찮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공용 시설과 개별 식당은 화장실 입장이 유료 임에도 냄새와 관리 상태에 눈살이 찌뿌려진 적이 다수 있었다. 화장실 시설과 문화는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다고 느꼈다.

출장으로 계획하여 견학한 시설들에서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모습과 옛 것 그대로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바꾸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보다는 전통을 지키면서 실용적인 부분을 가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 시도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되 전통은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번 출장에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인간 중심의 도로 및 도로 환경 설계였다. 도로는 인도가 매우 넓어 인도가 가장 중심임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 우선순위가 자전거 도로이며 가장 후순위가 자동차 도로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인도를 통해 걸어다닐 때 통행에 불편을 느낄 수 없이 넓었으며, 자전거 통행에만 주의를 조금 기울이면 도보 이동에 거리낌이 없었다. 인도의 보도블럭이 단단한 석재로 조그맣고 깊게 박혀있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수시로 보도 블럭을 교체하는 우리와는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었다.

거리에는 지중화 작업이 잘 되어 있어 미관상 보기 좋았고 바닥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되었으며, 걸으면서 음료수 캔이나 플라스틱 컵을 들고 다니는 보행자가 거의 없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통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음식물류 쓰레기 또한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폐기물 관리가 잘 되어있는 것은 쓰레기 배출량도 적고 쓰레기 처리도 잘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울러, 방문한 식당마다 느낀 것인데 1인당 나오는 음식 대부분이 접시 1개, 그릇 1개 정도로 단출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도로 환경이나 쓰레기 처리 상황을 보건데 독일과 네덜란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여 환경보호에 방점을 둔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어서 의미있는 출장이 되었다.

### 줄버레인 탄광 산업단지 내 루르 박물관

독일 줄버라인 탄광 산업단지는 우리나라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깃든 역사적으로 뜻깊은 장소입니다. 특히 2014년에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에서 한국전쟁으로 어려운 시절 독일에 파견된 남녀 주인공이 이곳에서 만나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독일의 산업 유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로 해외로 진출한 한국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명을 걸고 번 돈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서 지하 갱도를 관람하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떠올리니 자연스럽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탄광 건물은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복원되었으며 탄광 산업단지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석탄 산업이 쇠퇴하며 문을 닫았던 이 곳은 복원 작업을 거쳐 이제는 지역 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처음에는 투박한 옛 산업단지라고 생각했지만, 세련되고 정돈된 모습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이 산업 문화 유산을 소중히 보존하고 이를 재창조하여 문화와 예술의 장으로 탈바꿈한 모습은 많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과 문화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변모하길 희망합니다.

## 독일에서 바라본 자전거 교통 문화

독일에서는 자전거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평지가 많아 자동차 도로보다 자전거 도로가 더 잘 정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자동차보다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자전거를 이용할 때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는데 아침 등교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자전거로 학교에 데려다주는 부모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그리고 자전거 앞뒤에 아이들을 태운 가족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집 앞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고 동네별로 자전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의 바깥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자리잡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가 끝나는 곳에서는 차도에 자전거용 차선이 이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여 사고가 나면 보행자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전거 도로에 대한 독일의 엄격한 질서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자전거를 조심하세요”라고 반복적으로 부탁했던 말도 인상깊었는데 구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갖춰진 자전거 도로 인프라 덕분에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조차 자전거 전용으로 설치된 곳이 많았고 일부는 바닥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각종 사고나 안전에 대한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구미는 아직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전거를 출퇴근, 운동, 생활의 일부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탄소중립 및 시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네덜란드의 토마토 월드에서 배운 농업 혁신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농업 선진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금을 머금은 염전 같은 척박한 땅과 흐린 날씨, 부족한 일조량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이들은 유리온실과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토마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농업은 가족경영을 기반으로 대학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교수들이 첨단 농업 지식을 현장에 제공하며 이러한 협력이 지난 70년 동안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네덜란드 농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기술력에만 있지 않고 농업인들 간의 정보 교류와 인식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 농촌에서는 도시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가능해졌고 대규모 농업 생산 덕분에 가격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 비닐하우스 농업도 자연재해에 강한 유리온실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구미시설원예 생산단지가 청년 농업인 정책과 첨단 기술, 그리고 교수들의 전문 지식이 결합된 스마트팜 농장으로 변모하여 이를 통해 구미시가 첨단 기술과 융합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유럽 연수를 통해 접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구미시 의정 활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구미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구미시에 맞게 접목시켜, 도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잘 정비되어 있고, 시민들 대다수가 자전거를 주요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자전거가 다른 교통 수단보다 우선 시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구미시에도 자전거를 대체 교통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의 전환은 구미시의 교통 정체 해소와 환경 보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미시 역시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구미시를 더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폐건물 및 산업시설의 재생과 관련된 유럽의 사례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폐공장이나 오래된 건물들이 철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역사적 가치를 살려 재생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구미시에도 오래된 산업시설이나 폐공장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단순히 철거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미시도 이러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폐건물과 산업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구미시가 가진 특색과 역사를 살린 재생 프로젝트는 구미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뿐만 아니라, 구미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생 과정에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도로 확장과 관련된 교훈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도로 폭이 확장되면 자동차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환경 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구미시에서 도로 확장과 관련된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만큼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확장을 통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자동차의 증가를 막고, 동시에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럽에서 경험한 스마트팜과 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면 구미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은 기후 조건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업과 특수작물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우리나라, 특히 구미시의 농업에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구미시는 유리한 기후 조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미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스마트팜과 특수작물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은 구미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경험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구미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유럽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구미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구미시가 자랑할 수 있는 특성을 살리면서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미시는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풍요로운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탄소 발자국(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을 현명하게 줄이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다. 성별 불문하고 고령자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었다. 유아를 태워서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가 유독 많이 눈에 띄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생경한 광경이었다. 또한, 도심지 내에 전기를 이용한 트램과 전기 버스 운행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었고 급출발, 급정거하는 차량을 이동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또, 승용차는 경차와 중형차가 대부분이었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대형 승용차는 숫자가 많지 않았다. 당연히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탄소발생이 저감되지 않을까? 선진 유럽의 환경 문화를 도로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방문지에서는 도심지 한가운대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었고 강 주위로 산책과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즐비하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강가나 강변에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 펜스가 보이지 않았던 점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응당 안전 펜스가 있을 법한 장소에도 펜스와 같은 구조물이 전혀 보이지 않아, 현지 가이드에게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고 물으니 추락 사고 등의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다소 놀라웠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문화와 안전 사고에 대한 자신감은 어릴때부터 이루어지는 안전 교육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교통안전, 학교 폭력, 화재, 교외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특히, 독일은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교통경찰관 감독하에 <자전거 타기 자격증>을 취득한다. 자전거 타기는 기본이고 도로 주행 규칙을 알아야 테스트



에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수영 역시 <기초 수영 자격증>을 초등학교 3-4학년에 취득할 수 있도록 어릴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 받는다고 한다. 다이빙으로 시작해서 여러 영법으로 최소 25미터를 수영할 수 있어야 주어지는 자격증이다. 이러한 교육이 바탕이 되어 과도한 안전 시설 설치가 없이도 강 주변에서 여가와 취미 활동을 하는데에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토마토 월드는 정부 지원 없이 기부자와 스폰서 기업의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는 농업과 관련하여서는 생산자도 소비자도 정부가 모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 지원없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이채로웠다. 가족 구성원으로 이뤄진 경영진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하였다.

독일의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기억에 남는다. 독일에서 35년째 살면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현지 가이드의 설명으로는 독일의 공교육 시스템은 연방주의 체제에 따라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직업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초중등교육은 물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다만, 초등학교 4학년(일부 주는 6학년) 성적과 교사 추천에 따라 중등학교 유형이 결정된다고 한다.

학업 성취도에 따라 학교 유형이 결정되고, 낮은 성적의 학생이 상위 학교로 진학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다. 이처럼 독일의 공교육 시스템은 성과 중심적이며, 학생의 적성을 고려하지만 성적에 따라 학교 유형이 나뉘는 점에서 경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상교육 원칙과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보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모든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는 열려 있다고 평할 수 있겠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공원, 거리, 박물관, 과학관, 음식점 등 가는 곳마다 유럽답게 스테인리스 쓰레기통과 재떨이가 있어 시민들이 깨끗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쓰레기통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관리도 관리지만 쓰레기 배출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 시보다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정책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국가 같았다. 아울러, 도로 상황을 보고서는 걷는 사람이 우선, 자전거가 우선이며, 자동차는 항상 멈춤을 준비하고 운행하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다. 무작정 도로를 넓히는 것이 우선이 되는 우리 시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좀 불편하더라도 우선 순위를 사람으로 두어 지속 가능한 구미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루르박물관과 란트샤프트 공원은 오래되었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화려하지 않게, 인공적인 느낌을 주지 않게 시설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점은 전문가들의 뛰어난 기획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물류 ICT 전시회에서는 네덜란드가 물류가 매우 발달한 국가이니까 이러한 전시회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모든 것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는 우리 실정에 맞게 물류 정책을 실시하면 될 것이다.

기업가 정신이 엿보였던 하이네켄 박물관은 시음과 볼거리 및 연계 상품을 판매하여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들어 계속 이용하도록 유도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구미시가 미술관을 개관한다면 반고흐 미술관처럼 IT 기술을 접목하여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NEMO 과학박물관에서는 시설을 조성하려면 오랜시간 기획하고 고민하여 가족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이 중요하다고 느꼈으며, 토마토 월드에서는 농업 환경을 이해하고 우리 농업에 접목시켜야 올바른 농업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음을 생각하였다.

로테르담 마켓홀은 건물 하나가 마치 예술 작품과 같았다. 모두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는 우리 환경과는 대비되었다.

퀵른 예술 전시회의 규모는 굉장하였는데, 우리 시도 우리 상황에 맞게 예술 발전을 위해 예술 사업을 잘 꾸려야 한다고 느꼈다. 아울러, KOTRA에서는 우리 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시 많은 역할과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다. 괴테 하우스에서는 자체 재단에서 스스로 기념사업을 운영하고 유산 보존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래전에 사용되었던 산업유산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자연, 역사박물관을 조성하여 환원해 주는 루르 박물관에서 우리 시에서도 국가산단의 역사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란트샤프트 공원은 폐공장 재생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중인 곳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원과 공연장, 스포츠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미의 국가산단도 이런 모습으로 재생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에 기업의 책무를 느낄 수 있었다.

물류 ICT 전시회에서는 물류쪽 부스를 관람하면서 발전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 기계가 자동화 되면서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 특히, 친환경적인 포장기술과 생산기술은 우리도 배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네켄 박물관은 시내 중심가에 있던 맥주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에게 오래전 역사를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에서 기업이 지역과 주민에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반고흐 미술관은 미술관이 정부의 지원으로 조성되고 운영되지 않고 재단이 직접 투자하여 운영한다고 한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NEMO 과학박물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물리, 화학, 생물, 친환경에너지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 시에서도 과학관을 새롭게 만든다면 직접 체험을 하여 과학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하겠다.

토마토 월드에서는 친환경 스마트팜으로 실험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각 농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느꼈다. 또 기업에서 환경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태양광이 부족한 네덜란드의 특성상 스마트팜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해가 되었고, 생산된 농작물을 배송하는 물류의 규모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로테르담 마켓홀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곳이지만 하나의 관광지처럼 조성이 되어있었다. 특이한 모양의 건물부터 내부 공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퀄른 예술전시회는 아트페어 장소가 너무 넓어 다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곳이다. 많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었고, 구미아트페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구미아트페어는 지역적 상황으로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기는 어렵더라도 지역 청년 작가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유럽 시장의 무역을 담당하는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해외 사무소를 방문하여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니 반가웠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무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수출의 기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괴테 하우스는 네덜란드에서 본 반고흐 전시관과 달리 생가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생가 옆에 기념관을 만들어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등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시설이 정부의 지원이 아닌 재단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고 재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감당한다고 한다.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사업도 재단을 만들어 독립하여 진행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변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멋지게 조성되고 여러 시설이 있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독일의 마인우퍼 공원은 실용주의적 행정 때문인지 자연 친화적인 곳이었다. 공원에서 자유롭게 운동하고 생활하는 모습에서 공원이 놀러가는 곳이 아니라 생활 속에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루르박물관과 란트샤프트 공원은 독일의 산업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소였으며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공간 재생을 통해 문화·체험·쉼터 등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시는 산업이 활성화된 도시이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조성될 곳인데, 이에 따라 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내륙, 항공 물류의 특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통신, 센서, 로봇기술 등이 복합된 자동물류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러한 기술동향을 물류 ICT 전시회에서 살펴볼 수 있어 뜻깊었다.

반고흐 미술관은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관련 상품의 매출 증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하며 미술관을 통한 지역활성화 기여를 보며 미술관의 필요성을 느끼며 우리 관내에도 시민 및 외부인이 방문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미술관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토마토 월드는 스마트팜을 이용한 첨단 농업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장소로 관내 옥성화훼단지과 유사한 시설임을 확인하였고 선진 농업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옥성화훼단지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에 위치한 대구경북 KOTRA 구미분소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및 활용 방안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국외출장은 폐공장을 활용한 전시·문화공간활용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루르박물관과 같이 구미시 관내 폐공장을 활용하여 구미의 산업 역사를 품은 박물관 도입 활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류 ICT 전시회는 자동 물류시스템 기술발전을 알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엿볼수 있었다. 자동화를 이루어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물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 협업을 통해 이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춘 물류의 중심지로 우리시가 탈바꿈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하이네켄 박물관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여 체험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성공한 사례로 보았으며, 지역을 대표하며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고 차별화된 특색 있는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례로 확인하였다. 우리 관내 특화 가능자원을 찾고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으로 특색있는 장소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NEMO 과학박물관은 전 연령이 참여 가능한 과학전시관으로 물리, 화학, 인체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직접 체험하며,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유·아동에게 꼭 필요한 시설과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 관내에 위치한 구미과학관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증대 및 정보 전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로테르담 마켓홀은 주상복합 공간으로 지역 내 상권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며 지역 내 대표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었다. 단순히 건물의 외형이나 디자인을 통해

대표 장소로 자리잡은 것이 아닌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장소로 생각되며 이후 구미시 관내 주거단지 조성 시에 특색있는 장소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프랑크푸르트 KOTRA 방문을 통해 독일의 경제상황과 교육·취업·창업의 전주기적 지원방안을 확인하며 국내지원 제도와 차별화된 점을 확인하였다.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교육받고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활성화와 지역정착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느끼고 관내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KOTRA 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루르 박물관은 폐광산 원형을 그대로 살린 박물관으로 도시재생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 할 수 있었다. 또한 광산 및 광물 등의 산업 소재뿐만 아니라 자연사 및 지역사 등의 파생된 다른 주제들을 포함해 전시하여 다채롭게 볼거리가 있었다. 우리의 도시재생은 건물을 새로 건설하는것에 국한되어 루르와는 비교되었다.

란트 샤프트 공원은 루르 박물관과 같이 제철소를 그대로 살린 공원이며 200ha의 넓은 제철소를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세월에 녹슬고 부서진 부분 조차도 그대로 활용한 점이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공원 또한 관리 및 운영이 쉽도록 식재 등을 한 점이 눈에 띄었다.

물류 ICT 전시회는 전 세계의 물류 관련 기업들이 소개된 전시회이며, 최신의 물류 운송 및 보관 등의 IT 솔루션들이 소개되었다. 또한 바로 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스마트 물류 이동 기계 및 시스템이 많았다.

하이네켄 박물관은 150년 전 맥주 제조 공장으로 19세기에 맥주와 같은 식품을 대량 생산한 부분이 가장 놀라웠다. 또한 관광 및 투어객들을 위한 자체 콘텐츠를 개발해 맥주=하이네켄 이라는 공식을 연상케 만들었다.

반고흐 미술관은 전체 4개 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가 알던 고흐의 모습 이외의 다른 모습과 일생을 볼 수 있었다. 각 층마다 고흐의 일대기를 다루면서 화풍의 시대적 변화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생전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에밀, 고갱 등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었고 고흐와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모 과학박물관은 각 층마다 주제들로 나누어져 있으며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친숙하면서도 재미있게 기초 과학의 원리들을 배울 수 있게 했다. 또한 SNS에서 이미 유명한 각종 물체를 이용해 도미노 같이 만든 쇼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만 하다.

토마토 월드는 토마토 스마트팜이면서 동시에 농업 토탈 IT회사이다. 연구소 내의 크고 작은 협력 기업과 연구 인력에서 나오는 방대한 재배 및 솔루션을 모아 축적한 빅데이터로 스마트팜 시설 및 솔루션을 판매하는 곳이다. 우리 시의 옥성에 위치한 화훼단지 같은 규모와 비슷한 곳이 많으나 결국은 운영의 차이라 생각한다.

마켓홀은 먼저 건물 자체가 주는 특이함과 상징성으로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중앙홀에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마켓과 도시 사이의 연결성을 더하였다. 또한 100여개의 상점이 입점해 다양한 먹거리는 물론 기념품과 볼거리가 풍성했다. 그리고 앞선 루르박물관 및 란트샤프트 공원의 도시재생과 달리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설하고 자리잡은 부분도 특이점이다.

쾰른 예술전시회에서는 현대 미술을 한자리 볼 수 있는 전시회였다. 전 세계 다양한 현대 미술 전시회 작가들의 설명도 들으면서 새로운 미술 기법, 드로잉법, 표현 방법 그리고 표현 소재들이 눈에 띄었다. 우리 현실에 맞춰 동양화나 민화 소재의 전문 예술 전시회를 구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괴테 하우스는 괴테라는 유명 작가의 생가를 관광자원으로 산업화해 만든 시설이었다. 다양한 집기와 가구들을 보며 당시의 생활상을 볼 수 있었으며, 괴테와 그 가족에 대해 알 수 있게 방이나 공간마다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마인우퍼 공원은 수변 공원이지만 정확히는 옛 부두 등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든 수변 주택 및 강변 공원이다. 수변의 인프라와 활용은 우리나라가 더욱 좋지만 과거 시설들을 잘 활용한 부분에서는 좋은 사례라 평가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공식 방문기관을 제외한 독일과 네덜란드의 도심 상업지의 화장실에는 성별 구분 없는 남녀 공용화장실이 많아서 좁은 상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기억에 남는다. 남성만을 위한 소변기 없이 모두 좌변기만 설치된 화장실이었는데, 확실히 밀폐되어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었다.